한 · 일 · 베트남에서『剪燈新話』의 전파와 수용

박애화*
korea11158@gmail.com

Contents

I. 들어가기
II. 본론
1.1『전등신화』와 기타 동아시아 작품
1.1.1 구우와『전등신화』
1.1.2 한국의『금오신화』
1.1.3 일본의『오토기보코』
1.1.4 베트남의『전기만록』
2.1 애정류 작품군 분류
2.2 현실계 애정류 작품군의 특성
2.2.1 등장인물
2.2.2 남녀 주인공의 교감
2.2.3 결말구조
III. 나오기

Abstract

中・韓・日・越(ベトナム)は東アジアの国として共通の文化イデオロギーを持っている。そのためそれぞれの国の文学作品は互いに影響を及ぼしながらも各国の特徴を失わず、自国の文学発展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剪灯新話』『金鰲新話』『伽婢子』『伝奇漫録』のような作品はまさにこのような文学の相互影響と発展様相を如実に呈した例である。そこで、この四つの作品を比較研究の対象に定めた。

本稿は上記四つの作品に収録されている、男女の恋物語を素材にした作品群を研究対象とし、その中でも現実世界の男女主人公が出会って恋をする内容構成である「男＋女」の作品群についての比較を中心とした。

作品を効果的に比較分析するため、先に男女主人公の出会いの様相によって恋物語に関する作品を三つの類型に分類した。一つ目は現実界作品群、二つ目は現実界から非現実界につながる作品群、三つ目は非現実界作品群である。上記分類作業に基づいて現実界の作品群について登場人物、男女の交感、そして結末構造という順で比較分析をした。まず登場人物と男女の交感において『伽婢子』は『剪灯新話』と類似しているが、『伝奇漫録』は大きな違いを見せている。また結末構造においても『剪灯新話』と『伝奇漫録』はハッピーエンディ

*고려대학교 강사. 일본문학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ングと悲劇が混在しているが『伽婢子』はハッピーエンディング結末構造しかない。その理由は社会現実に対する著者の受容態度と大きく関わっている。それに著者の創作意図によって、作品ごとに悲劇をもたらす原因も相違であるが、『剪灯新話』はその原因として戦乱をあげている反面、『伝奇漫録』は妻に対する夫の不信と裏切りを原因に設定し、ベトナムの男性中心の社会弊害を暴き出し、批判している。

Key Words : 剪燈新話、金鰲新話、伽婢子、傳奇漫錄、現実界恋物語
(Jeondeungsinhwa, Geumosinhwa, Otogibouko, Jeongimanrok, Realistic Romance Stories)

I. 들어가기

세계 문학사 또는 지역 문학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문학 작품은 그 나라 안에서는 성행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로 전해져서 비로소 중시받는 경우가 많다. 명나라 초기 구우(瞿佑)에 의해 창작된『전등신화(剪燈新話)』(1378년)가 바로 중국 국경을 벗어나 주변 여러 나라의 소설 창작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었던 작품 중의 하나이다.『전등신화』는 1421년 이후 조선으로 전해져 조선시대 최초의 전기소설(傳奇小說)인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1465-1470년경)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전등신화』의 방대한 주석이 조선 이조 명종(李朝 明宗:1546-1566년)시기 임기(林芑)와 윤춘년(尹春年)에 의해『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1559년)로 나타났는데 이는『전등신화』의 가장 이른 주석본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금오신화』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져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오토기보코(伽婢子)』(1666년)와 에도 시대 최고의 괴이소설(怪異小說)인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우게쓰 모노가타리(雨月物語)』등 작품의 성립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전등신화』는 베트남으로도 전해져 완서(阮嶼)의『전기만록(傳奇漫錄)』(1527-1547년경)의 출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전등신화』는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서(禁書)'로 지정되어 중국 국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지식인들의 중시를 받지 못한 반면에, 주변 국가인 조선, 일본 심지어 베트남으로 전해져 그 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번안이 되어『전등신화』의 문학적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고 할 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겠다.

중(中)·한(韓)·일(日)·월(越:베트남) 네 나라는 공동의 문화 원형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로서 이들 국가의 문학작품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각자의 특징을 잃지 않고 자국의 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전등신화』『금오신화』『오토기보코』『전기만록』과 같은 작품들은 바로 이런 문학의 영향과 발전 양상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전등신화』 및 그 관련 작품들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 학자들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특성이 있고 치중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에서의 비교연구는 주로 '발신자'의 입장에서『전등신화』의 작자 및 작품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의 전파와 그 나라 소설 창작에 미치는 영향의 고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비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학자들이『전등신화』가 동아시아에서의 전파와 영향관계에는 주목했지만, 그 영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한국에서의 비교연구는 '수신자'의 입장에서『전등신화』 및 그 관련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사한 특정 작품 간의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일본의 비교연구 또한 '수신자'의 입장에서 번안작인『오토기보코』이야기 소재의 출전을 밝히는 데 주를 이루고 베트남의『전기만록』을 포함한 네 나라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1)]

통틀어 현재까지 이루어진『전등신화』 및 그 관련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개별 작품 혹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몇 편의 이야기를 선별하여 일대일의 비교 방법으로 소설의 구성이나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반면 스토리 구성이 유사한 작품들에 대한 유형화 작업과 체계적인 연구는 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품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도입하여 상기 네 작품의 장르에 대해 유형별 분류를 진행한 후, 이에 근거하여 유형별 구체적인 비교

1)『전등신화』와 관련하여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선행연구 및 그 문제점은「在东亚《剪灯新话》的传播-韩・日・越作品比较为中心-」『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立命館大学東アジア思想文化研究会 第4号(2012.1, pp.1-14)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분석을 통해 전기소설의 수용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애정류 작품[2]에 대한 분류와 현실계 애정류 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II. 본론

2.1『전등신화』와 기타 동아시아 작품

2.1.1 구우와『전등신화』

작자의 생애는 작품의 구성이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영향관계가 깊은 작품들 간의 비교연구는 서로 다른 작자들이 제각기 살아온 시대의 문화와 사회 및 정치적인 요소가 작품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기소설의 모체가 되는『전등신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작자 구우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등신화』의 작자 구우(1347-1433)는 원말명초(元末明初)의 문인으로 유년기 문학적인 재주가 뛰어나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구우가 처해 있었던 시대 및 정치적 제한으로 성장하여 크게 중용되지 못하고 불운의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원말명초는 잦은 전란으로 인하여 사회가 대단히 불안하였고, 구우는 스물한 살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란을 피해 다녀야 했었다. 명나라 건국 후에 20여 년 동안 현(縣)의 소관(小官), 국자감조교(國子監助敎) 심지어 우장사(右長史)라는 관직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나중에 시화(詩禍)로 남경(南京)의 금의위옥(錦衣衛獄)에 감금되고, 영락11년(永樂11年:1413)부터 홍희원년(洪熙元年:1425)에 이르기까지 보안(保安)으로 유배되어 있는 사이 구우의 처(妻)는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뒤 구우는 홍희 을사년(1425년) 태사 영국공 장보(張輔)의 주청에 의해 귀양에서 풀려나 여든에 가

2)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여인의 정체가 '인간, 유령, 꽃의 정령, 심지어 동물의 환신'인지를 막론하고 남자와의 감정교류가 주를 이루면서 전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 작품은 본고에서 모두 애정류 작품군에 귀속시켰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까운 고령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창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인생 경험[3]을 글로 표현하고자 만년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다산작가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나중에 내각 판사를 거쳐 다시 교사로 지내다 선덕 7년(宣德 7年:1433)에 여든일곱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구우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불운의 작가로 작품에는 그의 사상과 불운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한편 문학 작품은 작자 자신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훌륭한 작품은 단지 작자의 상상이나 창조력에 의해서만 탄생되는 것은 아니다. 작자는 흔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자신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작자의 경험 또한 당시의 시대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전등신화』도 예외는 아니다.『전등신화』의 탄생은 구우가 살았던 원말명초라는 시대를 떠나서는 결코 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전등신화』가 출현된 시기는 바로 원말명초로, 해당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였고 한족이 이민족인 몽고족의 나라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중원지역을 되찾고 명나라를 건립하려던 시기였다.[4] 문화적으로 원나라 지배계급으로부터 한족 문화에 대한 멸시, 유가배척, 과거제 폐지 등을 겪어온 한족은 자주의식과 민족의식을 자각하여 구문화의 부흥을 꾀하고 복고주의적 조류 속에 휩쓸려 있었다. 이는 시민 문화의 발전과 아울러 저작층이 시민계급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5] 작품의 소재 또한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문학작품보다 쉽게 일반 독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원나라 중기 이후, 구우가 살았던 중국 강남지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강남지역 기존의 경제적 기반 위에 천연의 지리적 장점을 살린 수

3) 구우는 87년이란 길고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를 거친 수회의 정권 교체와 원말명초의 대 동란을 겪은 사람으로 전란이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피해와 고통, 그리고 조정(朝廷) 관리의 암흑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본 사람이다.

4) 全恵卿(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剪灯新話」·「金鰲新話」·「伝奇漫録」을 중심으로-』崇実大学校 大学院 国語国文学科博士論文, p.28.

5) 全恵卿(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剪灯新話」·「金鰲新話」·「伝奇漫録」을 중심으로-』상게서, p.2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많은 상업도시가 우후죽순 나타났고 시민계층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민계급의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 작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전등신화』는 이러한 원말명초라는 특정시기를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남방의 시민생활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도시경제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전등신화』 작품 속의 장소 설정도 일제히 원말명초 도시경제가 발전한 중국의 동남연해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색채가 짙은 사람들의 도시생활이 문화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6)]

2.1.2 한국의 『금오신화』

『전등신화』가 중국 국내에서는 금서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점점 사라져 가던 시기, 조선에서는 오히려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관방한어경전(官方漢語經典)으로 지정되어 임금과 조정대신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등신화』가 조선에서 관리와 문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씨(李氏) 조정이 한문을 관방통행어(官方通行語)로 정하였고, 한문은 지식인들이 벼슬을 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우의 작품은 수많은 지식인들의 구독 대상이 되었다.[7)] 또한, 문학작품으로서 『전등신화』가 조선에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우의 필하에서 완성된 전기소설이 당시 조선 독자들의 구미에 맞았기 때문이다.[8)]

구우와 마찬가지로 문인가정에서 태어난 작자 김시습(1435-1493)은 생육신(生六臣)[9)]의 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시나 사(詞)에 관심이 많았고 그의 이름도 논어의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읽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

6) 喬光輝(2006) 『明代剪灯系列小説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201-202.
7) 陳大康,漆瑗(1996) 「『剪灯新話句解』'明嘉靖刻本'弁 -兼論該書在朝鮮李朝的流伝与影響」 『文学遺産』 第5期, p.106.
8) 孫康宜(2008) 「文章憎命達:再議瞿佑及其《剪灯新話》的遭遇」 『中山大学学報(社会科学版)』 2008年第3期第48卷, p.22.
9) 생육신은 조선시대 단종(1452-1455 재위)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 당하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절의를 지킨 6명의 신하, 즉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등 여섯 사람을 이른다. 단종 복위운동의 실패로 죽임을 당한 '사육신(死六臣)'과 달리, 살아서 절개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생육신'으로 명명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習之, 不亦說乎)'를 본 따서 지은 것이다.[10] 그는 구우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문인들 사이에서 신동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재능이 세종대왕의 인정을 받아 학업성취 후 크게 중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청년 김시습은 가정 불행과 과거시험에서의 낙방, 결혼생활의 실패라는 연이은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뒤 조선왕조의 왕위찬탈[11]로 충격을 받은 김시습은 최종 불문에 기탁하였는데 그 때 그 나이 21세였다. 31세에서 36세에 이르는 시기, 김시습은 경주의 금오산(金鰲山)에 은거해 있으면서 오늘날의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37세에 또다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상경하여 재혼까지 하였으나 속세와는 인연이 없어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를 잃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한다. 그 뒤, 김시습은 다시 머리를 밀고 행각승으로 십여 년 동안 관동지방을 여행하면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다 성종24년(1493) 홍산 무량사에서 쉰아홉의 나이로 생애를 마친다.[12]이와 같이 김시습 또한 어렸을 때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시대와 사회적 제한으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불운의 작자라 할 수 있겠다.

김시습이 살았던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전제와 군제가 정비됨과 동시에 중세의 귀족국가로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군주국가로 나아가고, 사상적으로는 고려말기의 쇠퇴한 불교로부터 벗어나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왕조 건국 후 40여 년 뒤 정치적 안정을 기하려는 세종 연간을 지나 세조가 어린 단종으로부터 왕위찬탈을 계기로 정계와 사림(寺林)은 유혈의 혼란을 빚게 된다.[13] 또한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이었던 유교적 질서가 혼란해진 가운데 문학적으로는 설화에서 고려말 가전체문학으로 이어지는 문학적 토대가 성숙되어 전기소설 출현의 분위기가 갖춰진 시기이기도 하다.『금오신화』는 바로 이런 역사와 문화적 배경 하에 완성된 작품이다.

---

10) 孫康宜(2008)「文章憎命達:再議瞿佑及其《剪灯新話》的遭遇」전게서, p.22.
11) 세종과 문종이 차례로 죽고 단종 또한 3년 만에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李建昌(1927)「金時習伝」『啓明 第十九号』啓明倶楽部, p.22.
12) 李建昌(1927)「金時習伝」『啓明 第十九号』상게서, p.22.
13) 柳承国(1988)「梅月堂의 哲学思想과 선비精神」『梅月堂学術論叢 -그 文学과 思想』江原大学校 人文科学研究所, p.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1.3 일본의『오토기보코』

현재 학계에서는『전등신화』의 일본 유입경로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명나라와 일본이 교류가 있을 당시 선박을 통한 직접적인 유입과, 조선을 경유하여 조선 독자들의 음미와 소화과정을 거쳐 전해진 간접적인 유입과정이다.

『전등신화』가 일본에 전해진 가장 이른 시기는 분메이 7년(文明7年:1475) 즉 무로마치(室町) 중엽이다. 그 근거로 일본의 선승인 게이죠 슈린(景徐周麟:1440-1518)이『전등신화』권4의「감호야범기(鑑湖夜泛記)」를 읽고「독감호야범기(読鑑湖夜泛記)」란 제목으로 한수의 칠언구시[14]를 읊었는데 이는『한림호호집(翰林葫芦集)』권3에 수록되어 있다. 나중에 사와다 리에(沢田瑞穂)[15]의 고증으로 이 시가 분메이 14년(文明14年:1482)에 씌어졌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전등신화』가 무로마치 중기 명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선박을 통해 이미 일본에 전해져 승려나 지식인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16] 교호시대(享保:1716-1736)에 출판된『기이잡담집(奇異雑談集)』에도『전등신화』의「금봉채기(金鳳釵記)」와「모란등기(牡丹燈記)」,「신양동기(申陽洞記)」등 세 편의 이야기가 번역, 수록되어 있고 대략 게이안 연간(慶安:1648-1652) 에 성립된『아야시구사(霊怪草)』는 총 14편의 작품 중『전등신화』의 작품 8편이 번역, 수록되어 있으며 에도 초기 막부의 유관이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1583-1657)의 여러 작품 속에서도『전등신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은 일제히 원문의 인용이나 번역에 국한되어 있었다.[17] 이는 당시 일본에는 한문의 보편화와 과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또한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당시 조선과 베트남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전등신화』가 일본으로 전해진 초기에는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 하층 무사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구우

14)「銀河刺上鑑湖舟, 月落天孫窃夜遊. 又恐虚名満人口, 牛郎今有辟陽候」
李樹果(1998)『日本読本小説与明清小説-中日文化交流史的透視』天津人民出版社, p.8.
15) 沢田瑞穂(1941)「剪灯新話の舶載年代」『中国文学月報』第35号.
16) 李樹果(1998)『日本読本小説与明清小説-中日文化交流史的透視』전게서, p.8.
17) 渡辺守邦(1994)「怨霊・幽霊 近世怪異小説」『岩波講座日本文学と仏教』第2巻、岩波書店、p.2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전등신화』가 선박을 통한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조선의 임기와 윤춘년에 의해 간행된 『전등신화구해』가 일본에 전해지고 일본어로 번역 또는 번안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본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18]

구우의 『전등신화』가 단순한 번역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일본 문단에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로는 근세초기 일본의 가나조시(仮名草子) 작가 아사이 료이의 『오토기보코』(1666년)의 출현이다. 그 뒤로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1734-1809년)의 『우게쓰 모노가타리(雨月物語)』도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 씌어졌는데 서명 '우게쓰(雨月)'는 「모란등기」에 나오는 시구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 내리는 한밤중, 달이 지고 별이 성긴 새벽녘에(天陰雨濕之夜，月落參橫之晨)'에서 각각 '雨' 와 '月' 두 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19]

가나조시 작가이자 『오토기보코』의 작자인 아사이 료이의 문예적 활동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와 함께 유명한데, 그의 생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할 수 있겠다. 료이가 아직도 수수께끼 속의 인물인 것은 그의 연보가 분명하지 않으며 현 상태로서는 료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점의 존재이며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20] 료이의 아버지는 게이초(慶長) 말년(1610년경)에 셋쓰 미지마에(摂津三嶋江)의 한 절의 주지로 있었다. 그러다 같은 절에 살고 있었던 동생이 절에서 도망쳐 행방을 감춘 그 죄의 연좌로 료이 일가는 절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때 료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현재로는 료이의 출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료이가 유아기와 청장년시기를 낭인으로 보내면서 생활의 고달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운한 처지에 대해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 불교와 유교, 그리고 한문학 등 지식에 대한 습득을 통해 수양을 쌓았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는 의술과 설교, 저술업에 종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1644년경에 출가하여 승명을 '료이'라고 하였다.[21] 박식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료이는 만년에

18) 孫康宜(2008)「文章憎命達:再議瞿佑及其《剪灯新話》的遭遇」전게서, p.23.
19) 王淑琤(2008)『剪灯三種考析』p.154; Ueda Akinari, *Tales of Moonlight and Rain*, translated by Anthony H. Chambers, NewYork:ColumbiaUniversity Press p.13; 孫康宜(2008)「文章憎命達:再議瞿佑及其《剪灯新話》的遭遇」전게서, p.23 재인용.
20) 김대식(2005)『浅井了意의 思想研究-文学과 思想-』제이앤씨, p.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교토의 정원사(正願寺) 주지로 있으면서 『고사설화집(故事說話集)』이나 불서의 저술에 전념하였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오토기보코』의 속편인 『이누하리코(狗張子)』을 저술하였다. 료이는 겐로쿠 4년(元祿4年:1691) 1월 1일에 입적하였는데 향년 80여세로 추정된다.[22]

이와 같이, 료이에 대해 알려진 것은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 또한 박식하고 다재다능한 인재로서 고난에 찬 경험, 다양한 사상과 인생 가치관을 소지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료이는 구우나 김시습과 달리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대적하고자 하는 의식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사회에 동화되어 시대에 순응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관이 엿보인다. 이는 중세 초기적 시대사상과 논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료이의 다양한 사상들이 그의 인생에서 발현되는 데 모순이 없었다는 것이 특성이라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23] 즉 불제자 스님, 료이의 사상은 다양하면서도 상호간에 모순 없이 잘 조화되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1666년에 간행된 『오토기보코』는 어린이와 부녀자, 서민을 위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한문체가 아닌 일본식 한자와 가나를 섞어 만든 책이다. 작품 내용에 있어서도, 죽은 자에게는 불교적인 애도로,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기초한 유학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등 다양한 시점을 제시하는[24] 등 계몽, 교훈, 오락성이 짙은 작품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전등신화』를 모체로 한 번안작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오신화』와 『전기만록』에 비해 이야기 구성이 간략한 것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2.1.4 베트남의 『전기만록』

『전등신화』가 베트남에서의 전파 경로나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잘 알 수 없으나, 일부 학자들은 『전등신화』가 늦어도 16세기 초에 베트남에 전해져, 베트남 작자 완서의 전기소설 『전기만록』의 출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

21) 浅井了意作,藤堂憶斗訳(2001)『江戸怪談集伽婢子·狗張子』鈴木出版株式会社、pp.244-245.
22) 花田富士夫等 校注(2001)『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一伽婢子』岩波書店刊行、p.494.
23) 김대식(2005)『浅井了意의 思想研究 -文学과 思想- 』 전게서, pp.16-17.
24) 黃昭淵(2004)『일본근세문학과 선서』宝庫社, p.1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5]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전기만록』의 작자 완서에 관한 자료도 많지 않아 그에 관한 연구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본국인 베트남에서도 매우 미약하여 현존하는 자료 속에서는 약간의 단서 밖에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작자 완서에 관한 언급으로 가장 이른 문헌으로는 하선한(何善漢)이 영정초년(1547)에 쓴 『전기만록서(傳奇漫錄序)』[26]이고, 여귀돈(黎貴惇)(1726-1784)의 『견문소록(見聞小錄)』[27]에도 완서와 관련된 소전 한 편이 있는데, 이 역시 완서의 생애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그의 정확한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완서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기초로 여러 가지 추정을 통해 그는 대략 16세기 경 사람으로 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 완상표는 중앙의 높은 벼슬에까지 이르렀고 죽은 뒤에는 '행운의 신'으로 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서는 바로 이러한 고위층 관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풍부한 장서(藏書)를 읽을 수 있었고, 학문에 대한 부지런함과 비상한 기억력까지 갖추고 있어 타고난 문장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 나이에 향시에 뽑히고, 추천을 받아 회시에 여러 차례 합격하여 지현으로 선임되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였다. 그 뒤로 완서가 복직하지 않고 고향에서 은거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완서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는 그가 지현으로 부임된 곳이 고향과 멀리 떨어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없어 관직을 그만두었다 하였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은 베트남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도 큰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완서가 살았던 베트남 사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막등용(莫登庸)이 려공(黎恭)의 제위를 찬탈

25) 근래에 일부 학자들은 『전등신화』가 영락년간(1403-1420)에 이미 베트남에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태사 영국공 장보(구우가 79세의 고령 때 귀양에서 풀려나게 한 최대 공신)가 이 시기 네 번이나 안남(베트남)에 출정하였는데 구우의 문학적 재능에 늘 탄복했던 장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전등신화』를 베트남에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徐朔方【日】鈴木陽一(1995)「瞿佑的《剪灯新話》及其在近鄰韓越和日本的回音」『中国文化』1995年第2期, p.152.

26) 其録乃洪州之嘉福人阮嶼所著.公前朝進士翔縹之長子也.少劬于学,博覧強記,欲以文章世其家.粤領郷薦,累中会試場.宰于清泉県,纔得一稔,辞邑養母,以全孝道.足不踏城市,凡幾余箱,於是筆斯録以寓意焉.
陳慶浩,王三慶(1987)『越南漢文小説叢刊』伝奇類第一冊, 台湾学生書局, p.23.

27) 黎貴惇『見聞小録』「才品」巻五 (古抄本), pp.6-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527)하자 완서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정치의 허무함을 느끼고, 아무런 관직도 맡지 않고 고향에서 학당을 열어 제자를 가르쳤고 그 뒤로 성 안에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고향에 은거해 있는 몇 년 동안 그는『전기만록』4권을 썼는데[28], 당시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에게 달리 또 어떤 저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고증할 길이 없다.[29]

『전기만록』의 창작 동기에 관해서는 하선한이『전기만록서』에 쓴 다음의 언급이 있는데 이는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헌자료이기도 하다.

> 여러 해 동안 성안의 거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이 만록을 써 뜻을 기탁하였다. 그 문사를 보건데 종길(구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깨우쳐 조심하게 훈계하여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 세상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찌 작은 보탬이 된다고만 하겠는가.[30]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전기만록』은 완서가『전등신화』를 읽고 쓴 작품임에 틀림없으며, 문장 속에 '뜻을 기탁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서의 창작 동기는 단지 문학을 위한 창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작자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31] 이는『전기만록』서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 자료인『전기만록』의 매 편마다(「금화시화기(金華詩話記)」한 편 제외) 끝에 나오는 논찬을 통해서도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완서의『전기만록』은 베트남의 려조(黎朝:1428-1527년) 혼란기에 권신인 막씨가 일시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막씨 정권을 건립한 시기(1527-1592년)에

---

28) 베트남 학자 하선한이『전기만록』의 서문을 쓸 당시(1547) 완서의 풍격에 대해 '그(완서)의 문사를 보면 종길(구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觀其文辞, 不出宗吉(瞿佑)藩籬之外)'라고 묘사한 바 있다.
陳慶浩,王三慶(1987)『越南漢文小説叢刊』伝奇類第一冊, 전게서, p.9.

29) 張介宗(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金鰲新話·剪灯新話·伝奇漫録-』成均館大学校大学院博士論文, pp.31-33.

30) 「足不踏城市,凡幾余霜,於是筆斯録以寓意焉.観其文辞,不出宗吉藩籬之外,然有警戒者,有規箴者,其関於世教,豈小補云.」
陳慶浩,王三慶(1987)『越南漢文小説叢刊』伝奇類第一冊, 전게서, p.23.

31) 張介宗(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金鰲新話·剪灯新話·伝奇漫録-』 전게서, pp.34-3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출현된 것으로 보인다.[32] 또한『전기만록』이야기의 배경이 대부분 베트남 진조(陳朝)와 후려조(後黎朝)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1400년 려씨가 진씨의 왕위를 찬탈하자 진조는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고 명나라는 장보를 대장군으로, '원조'라는 명의 하에 베트남을 점령하고 안남을 교지(交趾)라 이름을 바꾸고 중국의 군현을 설치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 이에 베트남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명나라에 반항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마침내는 려리(黎利)가 명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안남을 통일하여 후려조를 세웠다. 이렇게 후려조가 겨우 나라를 회복하였으나 공신들의 권력싸움으로 나라가 또 다시 분열되었다. 후려조는 그 파동으로 인하여 또다시 전란이 빈번하였고 불안하고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 되었다.[33] 이와 같이 내우외환의 시대를 겪어온 완서는 나라의 정치적 혼란과 잦은 전란으로 불안 속에 휩싸여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명나라의 침입 및 내전에 대한 분노를 작품을 통해 과감히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완서가 살았던 시기 베트남은 사회적으로 혼란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문화적으로는 사실을 다룬 많은 저술과 신화, 전설, 지괴가 수집, 편찬되어 전기소설 출현의 기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34]

2.2 애정류 작품군 분류

작품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에 앞서 우선『전등신화』『금오신화』『오토기보코』, 그리고『전기만록』에 나타나는 애정류 작품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남녀 주인공의 만남의 양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실계 작품군으로 분류하고, 현실계 남녀 주인공이 만나 사랑하는 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둘째, 현실계에서 비현실계[35]로 이어지는 작품군을 말한다. 즉 현실계 남녀

32) 全惠卿(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剪灯新話」.「金鰲新話」.「伝奇漫録」을 중심으로-』전게서, p.29.
33) 張介宗(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金鰲新話·剪灯新話·伝奇漫録-』전게서, p.40.
34) 全惠卿(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剪灯新話」·「金鰲新話」·「伝奇漫録」을 중심으로-』전게서, p.29.
35) 본고에서 '비현실계'는 흔히 말하는 천상이나 지옥과 같은 이공간(異空間)이란 개념과 달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인공이 만나 사랑을 하다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 그 어떠한 계기로 죽어 나중에 유령으로 나타나 그 사랑이 비현실계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구성을 보이는 작품군이다.

셋째, 비현실계 작품군으로 분류한다. 즉, 현실계 남자가 비현실계의 여귀(유령, 신선, 꽃의 정령, 동물의 환신 등 비인간인 존재)와의 만남과 이별, 혹은 살아있는 남자가 여귀의 복수로 죽게 되어 나중에 남녀 유령이 함께 나타나는 작품군이다.

이상의 분류를 작품과 연결하여 도표로 만들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애정류 작품군 분류

작품유형		『전등신화』	『금오신화』	『오토기보코』	『전기만록』
현실계	男+女	「聊芳楼記」 「渭塘奇遇記」 「秋香亭記」		「妻の夢を夫面に見る」 「夢のちぎり」	「快州義婦伝」 「翠綃伝」 「南昌女子録」
현실계↓ 비현실계	男+女→ 男+女鬼	「金鳳釵記」 「愛卿伝」	「李生窺墻伝」	「真紅撃帯」 「遊女宮木野」 「死亦契」 「歌を媒として契る」	「麗娘伝」
	男+女→ 男鬼+女鬼	「翠翠伝」		「幽霊書を父母につかはす」	「陶氏業冤記」
비현실계	男+女鬼 (仙)	「滕穆醉遊聚景園記」 「緑衣人伝」	「万福寺樗蒲記」	「狐の妖怪」 「幽霊逢夫話」 「中有魂形化契」 「狐偽て人に契る」 「金閣寺の幽霊に契る」 「祈て幽霊に契る」 「易生契」 「梅花妖精」	「西垣奇遇記」 「徐式仙婚録」 「昌江妖怪録」
	男+女鬼→ 男鬼+女鬼	「牡丹灯記」		「牡丹灯籠」	「木棉樹伝」

'현실계'를 상대로 한 말이다. 애정류 작품 속, 살아있는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은 현실계 범주에 속한다. 이와 달리 남녀 주인공의 한 쪽, 혹은 쌍방이 살아 숨 쉬는 인간이 아닌 영(靈)적인 존재, 혹은 신선이나 귀신이라는 비인간의 존재라면 두 사람의 만남이 이승이든 저승이든지를 막론하고 본고에서는 비현실계 작품군으로 분류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3 현실계 애정류 작품군의 특성

현실계 작품군으로,『전등신화』에는 총 9편의 애정류 작품 중「연방루기(聯芳樓記)」「위당기우기(渭塘奇遇記)」「추향정기(秋香亭記)」 세 편이 보이고『금오신화』에는 현실계 남녀의 사랑이 김시습의 창작의도에 부합되지 않아서인지 한 편도 찾아볼 수 없다.『오토기보코』에는 16편의 애정류 작품 중「눈으로 본 아내의 꿈(妻の夢を夫面に見る)」「꿈속의 약속(夢のちぎり)」 두 편이 보이고 있는데 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편 모두 꿈이라는 공간모티브를 차용한 것이 특징이다.『전기만록』에는 총 9편의 애정류 작품 중「쾌주의부전(快州義婦傳)」「취소전(翠綃傳)」「남창여자록(南昌女子錄)」 세 편이 보인다.

아래 현실계 작품군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야기 흐름의 특성상 등장인물, 남녀의 교감, 결말구조 순으로 비교해 나가겠다.

2.3.1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소설 전반을 이끄는 주체로서 소설에서 그 중요성은 경시 할 수 없다. 작자들은 인물설정을 함에 있어서 흔히 자신의 취향이나 창작의도에 걸맞는 인물형상을 창조하는데 이에 국적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가미되면 인물설정 면에서의 상이함은 더 뚜렷해 질 것이다.

『전등신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신분설정에 있어서 남자 주인공은 주로 권력과 기품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주로 재색겸비한 상인이나 지체 높은 가문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연방루기」와「위당기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미곡상과 주점 집 딸이라는 신분설정은 원말명초 강남 도시경제의 발전과 크게 향상된 백성들의 생활면모를 반영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한편 연령에 있어서 주인공 모두 혼기가 찬 18-22세의 청춘남녀로 이는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적극 추구하려는 그들의 행동과 서로 맞물린다. 남녀 주인공 이름은「위당기우기」의 여자 주인공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외 모두 중국식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또한「연방루기」에서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인과 사랑하는 설정은 봉건사회 일부다처제를 연상케 한다.

『오토기보코』에서 남자 주인공은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명명한 것에 비해 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 주인공의 이름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중 「꿈속의 약속」은 「위당기우기」의 번안작으로 여자 주인공의 18세 나이는 변함이 없으나 남자 주인공은 두 살 적은 20세로 설정되었다. 또한, 신분설정에 있어서 남자 주인공은 정이 많은 서민을 강조하여 『전등신화』에 비해 신분이 훨씬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여전히 재색겸비한 주점 딸로 설정되어 큰 신분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눈으로 본 아내의 꿈」에서 남자 주인공은 전형적인 인본인인 가인(家人)으로 설정되었고 여자 주인공 또한 근세초기 유곽문화의 성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색 겸비한 유녀로 설정되었다. 작자는 『전등신화』에 비해 남자 주인공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작품이 서민성을 띠게 하였다. 이와 같이 료이는 현실계 작품에서 『전등신화』의 작품 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인물설정에 있어서는 일본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전형적인 일본인으로 재창조하였다.

『전기만록』 남녀 주인공의 인물설정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은 모두 밝혀졌으나 연령은 확인할 수 없고 「쾌주의부전」과 「남창여자록」 두 작품을 볼 때 남녀 주인공의 신분격차가 확연하다. 남자 주인공 모두 인물은 출중하지만 사치스런 부자 집 아들, 무식하고 의처증이 심한 호족인데 비해 여자 주인공은 재색겸비하고 마음씨 고운 빈가 집 딸과 정숙한 일반 여인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남녀 주인공의 신분격차는 앞으로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쟁취하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는 작자가 남성 중심적 봉건사회에서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을 표출하고 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소전」에서 가희 출신의 여자 주인공 취소는 애정 실현과정에서 시종일관 담대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 『전기만록』 현실계 작품의 이러한 인물설정은 작자 완서가 중국과 일본의 전기소설과 달리 이야기의 허구성에 착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전기만록』을 작자가 살아온 그 시대, 베트남의 불합리한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한 현실 비판이 강한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일환이라 볼 수 있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3.2 남녀 주인공의 교감

전기소설의 특성 상, 애정류 작품 중 남녀 주인공의 상봉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 혹은 중매인의 주선 등이다. 네 작품 모두 전기소설인 만큼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 작자의 창작의도 및 작품 주제에 따라 현실계 작품 중, 남녀 주인공의 만남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우선『전등신화』의「연방루기」와「추향정기」의 남녀 만남의 양상을 보도록 하자.

「연방루기」에서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살펴보면, 양가 부모가 처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정생이 장사 차 소주로 갔다가 설씨 댁에 기거해 있으면서 두 딸과 서로 눈이 맞아 사랑하게 된다. 한편「추향정기」에서 상생과 양채채는 육촌 남매로 어려서부터 대고모네 댁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어린 마음에 벌써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게다가 양가 부모가 벌써 두 아이의 혼인에 대해 언약을 한 상태라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였다. 이와 같이「연방루기」와「추향정기」에서 남녀 주인공은 예전부터 친분이 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위당기우기」에서 남녀 주인공의 만남은 우연이다. 남자 주인공 왕생이 추수 차 송강으로 갔다가 주점 집 딸과 첫눈에 반해 서로 마음이 끌려 꿈속에서 1년 동안 사랑을 하게 되는 낭만적인 만남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왕생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송강으로 갔다는 설정과 손님들로 시끌벅적한 주점에 대한 묘사는 원말명초 중국 강남일대의 번영한 도시경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전등신화』현실계 작품 속 남녀 주인공의 만남의 설정에 있어서 두 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는 전반 작품의 '현실성'을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음은『오토기보코』「눈으로 본 아내의 꿈」과「꿈속의 약속」의 남녀 주인공 만남의 설정이다.

『오토기보코』에서 남녀 주인공의 만남은 두 편 모두 우연인데 이는『전등신화』의 남녀 만남의 설정과 달리 전체 작품의 '현실성'을 미약하게 하는 작용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다. 「눈으로 본 아내의 꿈」에서 남자 주인공 하마다 요베는 유곽에서 유녀와 눈이 맞아 낙적하여 아내로 맞이한다. 「위당기우기」의 번안작인 「꿈속의 약속」은 원전과 유사하다. 즉 남자 주인공인 후나다 사콘이 추수 감독하러 하시모토로 갔다가 주점 집 딸과 눈이 맞아 서로 마음이 끌려 꿈속에서 1년 동안 사랑을 하게 된다.

한편 『전기만록』은 큰 신분격차를 보이는 남녀 주인공의 인물설정뿐만 아니라 그 만남에 있어서도 결코 범상치 않음을 아래 작품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쾌주의부전」에서 남녀 주인공의 양가 부모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가풍에 큰 차이가 있고, 또한 두 사람의 혼인에 있어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 남자 주인공의 일방적인 요구 하에 혼인이 이루어진다. 「남창여자록」에서는 호족인 장생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씨설을 사모하여 황금 100냥을 예물로 주고 혼인을 하게 된다. 워낙 의처증이 심한 장생이기에 함께 살면서 늘 아내를 의심한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을 전혀 거스르지 않고 현모양처로서의 예를 갖추어 남편을 공경한다. 이와 같이 두 작품에서, 부정적인 남자 주인공의 설정과 서로 대립되는 두 가문의 만남, 이와 더불어 사랑의 기초가 전혀 없이 금전적으로 맺어진 혼인은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작자는 이야기의 초반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 「취소전」에서는 여생이 가희인 취소를 연회석에서 만나 첫눈에 반하고 그 뒤 양강진 원수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결국 혼인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기만록』 현실계 작품 속 남녀 주인공의 교감에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두 청춘남녀가 혼인에 골인하는 데는 항상 중매인이 등장한다. 이러한 설정은 남녀가 사랑을 쟁취함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등신화』와 『오토기보코』 현실계 작품과의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국적이 다른 작자들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왕성한 젊은 청춘남녀의 자유연애와 결합방식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구우와 료이는 젊은 청춘남녀의 자유사랑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완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지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작자 자신의 계급적 입장과 큰 관련이 있으며 전반 사회에 대한 작자의 수용태도를 잘 반영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3.3 결말구조

애정류 전기소설 중 현실에서 비현실로 이어지는 작품이나 비현실계 작품의 결말구조는 대개가 비극성을 띠고 있지만 현실계 작품의 경우 비극과 해피엔딩의 결말구조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면에서 자못 흥미를 돋우고 있다. 이야기의 종결 방식에는 흔히 작자 자신의 시대나 세계를 보는 태도와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이야기의 결말을 분석, 비교하는 것은 전반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등신화』『오토기보코』『전기만록』의 현실계 작품 속, 이야기의 종결 방식을 요약해서 도표로 만들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현실계 작품군 결말구조

작품명	결말
「연방루기」(『전등신화』)	두 가문 중매를 세워 혼사를 논의하고 납채의 과정을 거쳐 정생을 사위로 맞이하였다.
「위당기우기」(『전등신화』)	1년 뒤 주점에 들린 왕생은 여인과 다시 만나 눈앞의 모든 광경이 꿈속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져 백년해로하였다.
「추향정기」(『전등신화』)	장사성의 난으로 두 사람은 십 년이나 소식이 끊기고 그 뒤, 채채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맺어지지 못하고 남자는 여러 날 침식을 폐하였다.
「妻の夢を夫面に見る」(『오토기보코』)	하마다가 귀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노래와 시를 읊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집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 졸고 있었던 아내 꿈속의 광경과 일치하였다.
「夢のちぎり」(『오토기보코』)	후나다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주점을 다시 찾아가 눈앞의 모든 광경이 꿈속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부부로 맺어져 백년해로하였다.
「쾌주의부전」(『전기만록』)	노름에 빠진 남편의 배신으로 예경은 자결한다. 나중에 예경은 유령으로 나타나 두 아이의 진로에 대해 예언한다. 결국 두 아이는 장성하여 명나라 군대를 물리치는데 크게 공헌하고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지금도 그 자손들이 쾌주에 살고 있다고 한다.
「취소전」(『전기만록』)	갖은 고난 끝에 여생은 취소와 함께 도주를 하고 나중에 여생은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두 사람 해로한 반면에 신주국은 사치가 문제되어 처벌되었다.
「남창여자록」(『전기만록』)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 아내가 음란한 짓을 했을 것이라는 남편의 의심과 구박을 이기지 못해 아내는 끝내 투신자살한다. 나중에 아내는 자신의 오명을 씻기 위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오토기보코』의 두 작품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전등신화』는 두 편의 해피엔딩과 한 편의 비극,『전기만록』은 두 편의 비극과 한 편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오토기보코』의「꿈속의 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속」은 인물설정이나 사건의 구성, 심지어 결말구조까지 「위당기우기」의 충실한 번안이라 할 수 있겠다. 「꿈속의 약속」과 똑같이 꿈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한 「눈으로 본 아내의 꿈」에서는 부부의 정이 얼마나 돈독하였으면 남편이 현실에서 본 광경이 여자의 꿈에 까지 나타났는지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료이는 애정류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부부나 가정(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교훈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또한 현실계 작품이 비극 없이 모든 작품이 해피엔딩이란 결말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료이의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인생관과도 큰 관련이 있겠다.

『전등신화』에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은 두 작품, 즉 한 남자가 두 자매와 사랑에 빠지고, 꿈이라는 공간모티브를 통해 전개된 두 편의 이야기는 애초 작자가 단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부여하기 위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한편,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추향정기」는 사실 구우의 자전적 소설이다. 남자 주인공 상생은 바로 구우를 가리키고 채채는 구우의 사춘기 때 첫사랑이었던 사촌누이동생을 가리킨다. 구우는 첫사랑과 맺어지지 못한 자신의 한을 「추향정기」란 작품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등신화』에서 작품의 비극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을 전란에 귀결시켰다. 이는 구우가 살았던 원말명초 동란의 시대, 전란이 젊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파괴와 전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질 수 없었던 작자 자신의 삶의 투영이라 할 수 있겠다. 문인으로서의 구우는 동란기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을 글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전기만록』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 「쾌주의부전」과 「남창여자록」 두 작품은 전란보다는 주로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베트남 여성의 불운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록 전란은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가져다주지만 『전기만록』에서는 『전등신화』와 달리 전란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전란이 지나간 평화의 시대, 즉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의 배신이나 불신이 여성 불운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당시 베트남 여성에게 있어서 전란 때가 오히려 평화의 시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남성중심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작자의 신랄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작자는 「쾌주의부전」의 결말에서 베트남 여성의 불운을 고조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죽은 아내는 남편의 꿈속에 나타나 두 아들이 성장하여 명나라 군대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울 수 있게끔 그들의 진로에 대해 제시를 해주고 실제로 두 아들은 예측한대로 크게 출세한다. 이는 작자가 당시 명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베트남의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염두에 두고 명나라의 베트남 침략에 대한 작자의 분노와 애국심을 작품을 통해 표출한 것이다.

한편 해피엔딩의 결말구조를 가진「취소전」에서 남녀 주인공은 사랑이 맺어지는 과정에 국내 폭력배의 방해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가희 출신인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하등한 신분에 굴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두 사람은 결국 해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자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자신의 출생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최종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부여하였다. 이 또한「쾌주의부전」과「남창여자록」두 작품 속, 남편의 불신과 배신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결국 자결이란 극단적인 해결방법을 택한 두 여자 주인공과 극(極)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독자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

III. 나오기

본고는 중국의『전등신화』및 그 영향의 수수관계가 있는 한국의『금오신화』, 일본의『오토기보코』, 그리고 베트남의『전기만록』의 유형별 분류와 비교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에 앞서 우선 남녀의 감정교류가 주를 이루는 이야기들을 애정류 작품군으로 분류하고, 애정류 작품을 다시 남녀 만남의 양상에 따라 현실계, 현실계에서 비현실계로, 비현실계 세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분류를 기초로 현실계 애정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야기 흐름의 특성상 등장인물, 남녀의 교감, 그리고 결말구조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인물설정에 있어서 세 작품 모두 그 나라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한편 주제 전달에 걸맞는 인물로 설정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또한 결말구조에 있어서 『전등신화』와 『전기만록』은 비극과 해피엔딩이 혼재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의 『오토기보코』는 두 편 모두 해피엔딩의 결말구조를 보이고 있다. 작자 구우와 완서는 현실계 애정류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구조를 통해 현실사회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바람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비해 료이는 오히려 현실사회에 동화되어 시대에 순응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자 비극적인 결말구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비극에 비해 해피엔딩의 결말구조는 교훈과 오락을 목적으로 한 그의 저작의도와도 잘 어울린다.

이와 같이 전기소설의 특성과 세 작품이 동일한 원전을 두고 있는 번안작이라는 이유로 각 나라 문학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유사하다. 하지만 세 작품 모두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 원작에 대한 작자의 변용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자국화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한 작품의 탄생은 그 작자가 살아온 시대의 문화적 풍속이나 시대 배경, 그리고 작자의 인생관, 창작의도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네 작품은 공통의 한자문화권 속에 있는 중·한·일·월의 소설비교에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柳承国(1988)「梅月堂의 哲学思想과 선비精神」『梅月堂学術論叢 -그 文学과 思想』江原大学校 人文科学研究所, p.99.

박희병(2000)「한국 · 중국 · 베트남 伝奇小説의 미적 특질 비교: 금오신화 · 전등신화 · 전기만록을 중심으로」『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돌베개, pp.307-351.

張介宗(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金鰲新話·剪灯新話·伝奇漫録-』成均館大学校 大学院 博士論文, pp.31-33, pp.34-35, p.40.

全恵卿(1994)『韓·中·越 伝奇小説의 比較 研究 -「剪灯新話論文」·「金鰲新話」·「伝奇漫録」을 중심으로-』崇実大学校 大学院 国語国文学科 博士, p.28, p.29.

渡辺守邦(1994)「怨霊 · 幽霊 近世怪異小説」『岩波講座日本文学と仏教』第2巻、岩波書店, p.219.

陳大康,漆瑗(1996)「『剪灯新話句解』'明嘉靖刻本'弁 -兼論該書在朝鮮李朝的流伝与影響」『文学遺産』第5期, p.106.

孫康宜(2008)「文章憎命達:再議瞿佑及其《剪灯新話》的遭遇」『中山大学学報(社会科学版)』2008年第3期第48巻, pp.22-23.

王淑琤(2008)『剪灯三種考析』p.154; Ueda Akinari, *Tales of Moonlight and Rai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ranslated by Anthony H. Chambers, NewYork:ColumbiaUniversity Press p.13.
徐朔方【日】鈴木陽一(1995)「瞿佑的《剪灯新話》及其在近鄰韓越和日本的回音」『中国文化』1995年第2期, p.152.
김대식(2005)『浅井了意의 思想研究-文学과 思想-』제이앤씨, p.7, pp.16-17.
李建昌(1927)「金時習伝」『啓明 第十九号』啓明倶楽部, p.22.
黄昭淵(2004)『일본근세문학과 선서』宝庫社, p.159.
浅井了意作·藤堂憶斗訳(2001)『江戸怪談集伽婢子·狗張子』鈴木出版株式会社、pp.244-245.
花田富士夫等 校注(2001)『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一伽婢子』岩波書店刊行、p.494.
陳慶浩,王三慶(1987)『越南漢文小説叢刊』伝奇類第一冊, 台湾学生書局, p.9, p.23.
李樹果(1998)『日本読本小説与明清小説-中日文化交流史的透視』天津人民出版社, p.8.
黎貴惇『見聞小録』「才品」巻五（古抄本), pp.6-7.
喬光輝(2006)『明代剪灯系列小説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pp.201-202.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